

## 일본관: 일상의 건축

## The Japanese Pavilion: An Architecture of Routine

안기현(한양대학교 조교수)

Ahn Keehyun (assistant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일본관의 주제는 'en: art of nexus(연: 연결의 예술)'이다. 여기서 'en'은 한자 '緣(연)'의 일본식 발음으로 불교사상과도 관련 있는 의미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사물과 관계되는 내력(혹은 이유), 가장자리/경계'라는 의미다. 주제문을 더 읽어보면 오랜 경기침체와 저성장 시대에 처한 상황(심각한 실업문제)과 설상가상으로 덮친 자연재해, 그로 인해 위축된 현실에서 사람들의 일상(실상)에 건축이 무엇인지, 건축이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현상을 진단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전시장 공간 구성은 외부와 내부로 나뉘어 있다. 국가관에 진입하며 바로 만나게 되는 필로티 공간은 외부 전시공간으로 사람들이 앉아 쉴 수 있는 평상과 높이가 다른 창호들로 이루어져 있다. 천장에 매단 창호에 의해 안과 밖의 시선을 불연속적으로 만들어놓은 이 설치물은 건축의 관계와 경계를 암시하는 것 같다. 전통건축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이 풍경은 서양 사람들의 동양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듯 놓여져 있다. 의외의 것이 발견될까 하는 궁금증에 가까이 다가가 내부 깊숙이 들여다보았지만, 한국의 전통건축을 많이 봐온 경험 탓인지 나에게서는 별다른 감흥이 없는 공간으로 일혀진다.

정원을 돌아 진입하게 되는 내부 전시장에는 12명의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이 사람의 연, 사물의 연, 지역성의 연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분류되어 전시되어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주로 '공유'라는 개념에 집중하며, 가족 단위(4~5인)의 구성체계에서 1인 주거의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 변화가는 사회적, 물리적 변화에 대응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역적인 건축가들의 작업들이다. 개개인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새롭게 관계 맺기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1/2, 1/5 혹은 1/10의 큰 스케일의 건축모형들로 만들어 눈높이에 맞춰 전시장에 펼쳐놓았다. 일본의 '장인정신'이 연상되는 세세한 디테일과 표현이 사람 사이에 공유하는 방식, 그에 필요한 공간들, 사람과 사물의 관계, 그것들이 결합하며 이루어진 풍경 등을 충분히 서사적으로 묘사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잘 만들어진 모형과 드로잉, 그리고 벽면에 투영된 이미지들은 표준의 건축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본과 비슷한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공유'라는 단어는 이미 한국에서도 유사한 관점(가족 단위의 도시 변화, 국가 경제의 상황 변화 등)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논 의 중이고 실제로 실현되고 있기에, 먼 나라의 도시 베니스에서 마주하기에는 너무 익숙하여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전체와의 '관계/경계/연결'이 말하는 동양적인 사고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하기에 새로움을 기대했던 나로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다만 이런 작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큰 무대에서 세상을 향해 당당히 던져놓을 수 있는 일본 건축의 자부심이 부러울 따름이다.

The theme of the Japanese Pavilion is 'en: art of nexus'. Here, the 'en' is the Japanese pronunciation of a Chinese word '緣' which is associated with Buddhism, meaning 'a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 background (or an origin) of a thing, or an edge/boundary'. According to its statement, the Japanese Pavilion is trying to talk about what architecture is and what architecture should pursue with regard to the everyday lives of people who have to live on in a depressing reality led by the economic recession, the low rate of development and even a natural disaster. However, by conducting conversations rather than presenting a definitive solution, it is declaring that its aim is to analyze the current circumstance and share the outcomes.

The exhibition space is divided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On entering the pavilion, we can find a pilotis space. The external exhibition area is composed of sitting tables and windows installed at different heights. The suspended windows fragmenting visual flows around inside and outside are deliberately arranged to imply the interrelationship and boundary between architectures. Reminiscent of more traditional architecture, this scenery seems to stimulate interest among western people about the East. Out of curiosity, expecting the unexpected, I got closer to the scene and tried to look deep inside, but maybe because I had seen so many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s the space was underwhelming.

The internal exhibition area, which has an entrance behind a garden, is exhibiting works of 12 young architects, and the works are grouped by three sub-themes; 'en' of people, 'en' of things, 'en' of regions. Mainly focusing on the concept of 'sharing', these works are created by the very realistic and local architects who try to adopt social, physical shifts led by the lifestyle change from family housing (for 4 - 5 people) to one-man housing. Demonstrating scenes in which individuals in the same space are making new relationships, large scale architectural models of 1/2, 1/5 and 1/10, are spread over the exhibition area at eye level. Raising respect to the craftsmanship of Japan, the models with fine details and expressions draw the attention of visitors by descriptively depicting the shared activities of people, the required spaces for such activities, the relationship of people and things and a scenery which embraces all of these elements. I would like to say that such well-made models and drawings as well as images projected onto wall surfaces seem to set a standard in architectural exhibitions.

Compared to Japan, Korea is experiencing a similar shift, and in such circumstances, from a similar perspective (the change of family structure and of the domestic economic environment) in Japan, the word of 'sharing' is being already discussed with many discourses and being actually realised. For that reason, the Japanese Pavilion was found as too familiar for me, even though it is built in Venice, a far-away country, and so it did not live up to my expectations. The oriental perception of promoting 'relationship/boundary/connection' over the whole is not new for us at all, so for me who had expected something very new, the Japanese Pavilion was somewhat dissatisfying. Nevertheless, I envy the pride of Japanese architecture, which boldly throws such small, everyday stories onto this world stage.

요시유키 야마나가 큐레이팅한 <연: 연결의 예술>은 특별언급상을 수상했다.

'en: art of nexus', curated by Yoshiyuki Yamana, has won a Special Mention at the 15th Venice Architecture Biennale.



안기현은 2009년에 에이엔엘스튜디오를 공동설립했고 2013년부터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2010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Oceanscope', 아시아 태평양 디자인 트리엔날레에서 수상한 'Lightwave', 종로 서촌의 극소주택 '몽당'이 있다. 2014 젊은 건축가 프로그램 최종후보였으며 2014 설화문화전에서 아트디렉터 및 큐레이터로 참여했다.

**Ahn Keehyun**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School of Architecture in Hanyang University. He founded AnLstudio in 2009. He was selected as the Best of the Best at the 2010 Red Dot Award held in Germany. Through AnLstudio he has completed built projects and held exhibitions in Korea (Seoul, Gwangju, and Jeju), China (Guangzhou), and Australia (Brisbane). Engaged in projects of all scales, his work specializes in the integration of architecture, art installations and public space.